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5호 [부제 제25468호] 주제 105 (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이십여일동안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 19일 오늘현재 연간물고기잡이목표 147%계선 돌파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도루메기 집종어로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인민군대안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은 11월 19일 오늘현재 지난해 집종어로전투기간에 잡은 수량보다 두배나 되는 9만여t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10만t 목표를 향해 계속 돌진하고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윤례에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은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인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장인 육군상장 서후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폐지를 쓴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는 자신과 깊은 정을 맺은 곳이라고,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보고싶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배전이 법지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와 한창 하북작업을 하고있는 고기배 <단풍1-03>호에 오르시어 어로공들의 고기비늘들은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뿔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쩔바를 몰라하는

어로공들을 만나주시면서 추운 날씨에 날바다에 나가 수고들이 많다고, 물고기를 잡고 오늘 새벽에 물어왔는데 힘들지 않는가, 예로되는것은 없는가 일일이 물으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으며 <단풍>호고 기배의 고향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에서 마련해준 고기배가 온을 내게 해야 한다고, 물고기잡이

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래, 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행동처장고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관들을 살펴보기도

살아보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수산사업소들에 나가 보면 어디서나 이런 호젓한 풍경을 볼수 있다고, 8월 25일 수산사업소 행동처장고도 리져나가도록 물고기들이 딱 차있는데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고기가공장에서 일손을 다치고있는 어로공들의 안테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남편들은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안테들은 가족소대를 못고 경쟁적으로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절임창고에 들리시어 물고기연기가 배어있는 절임랑크럭에 스팀없이 앉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초급동 및 행동시설들을 더 갖추어놓고 가공공정의 기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신선한 물고기를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주자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예로되는 문제를 모두 풀어주겠으니 그저 물고기만 평평 잘으라고 당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동해전역에 떠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

##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 이십여일동안에 9만여t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 19일 오늘현재 연간물고기잡이목표 147%계선 돌파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번 예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기간에 전례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었다는 일꾼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만선기를 날리기 전에는 포구에 닻을 내릴수 없다. 총정의 보고를 안고 당중앙뜨락에 들어서자고 하면서 당정책결사판철의 투쟁정신을 발휘한 이곳 어로전사들의 총정심에 감복해서 바다를 걸어주고 물고기들도 배에서 찾아온것 같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업소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를 맡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이 잡아들인 물고기들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심하고있다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에 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에 고기배를 무어 보내주면서 오륙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이 바다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라며 배들의 이름을 《단풍》이라고 지어주던 날이 엇그제같은데 오늘같은 기적이 빨리도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이 잡아들인 물고기 보물산은 불굴의 정신력이 용추된 위훈의 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과 같은 어로신화를 창조할수 있는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이 마음속신념을 바짝 조여매고 당정책결사판철의 노를 역세게 저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해의 새 역사를 반드시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될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 기세로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함으로써 황금해의 역사를 애국총정의 피와 땀으로 줄기차게 써나가는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부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세대와 후손민대가 덕을 볼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 수산부

문의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이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총정심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세세년년 물고기대풍, 물고기시대를 마련하는것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수산부문의 일꾼들에게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총일원들이 올해에도 자랑찬 물고기시대를 안아왔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해마다 만선의 배고통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총일원들은 자기들의 일리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대해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병사사랑, 인민사랑의 열과 정으로 은넛을 불태우시여 떨사복무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바다항기는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와 더불어 자애로운 원수님의 사랑을 길이 길이 전하며 최전연초소로부터 두메산골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에 더 길게, 더 가득히 차고넘칠것이다.

본사정치지도반









